



금창태(전 중앙일보 사장)

박중철(전 검찰총장)

손원(특허법인 C&S 대표)

이상배(전 서울시장)

이성규(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KWC 2020 기념 자문회의

KWC 2020이 막을 내린 다음 날인 7월 9일, 이를 기념하는 자문회의가  
(Wine Review) 아카데미홀에서 열렸다. 글 강은영 사진 장영수

KWC는 <Wine Review>가 개최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다. KWC 심사 기간은 단 2주 남짓이지만 준비 과정과 행사가 끝난 뒤 후속 작업들은 거의 1년 내내 이어진다. 포도를 수확해 와인을 병입하기까지 과정이 하루하루 쌓인 일상의 결과물인 것처럼 말이다. KWC 2020의 최종 심사가 끝나고, 그 이튿날에는 <Wine Review>의 자문의원들을 초청하여 KWC 2020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금창태(전 중앙일보 사장), 박중철(전 검찰총장), 손원(특허법인 C&S 대표), 이상배(전 서울시장), 이성규(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승웅(전 삼성물산 사장), 이윤수(전 KCTC 부회장), 임승남(전 롯데건설 사장) 등 8명의 자문의원들이 참석했다. <Wine Review> 발행인 최훈 원장은 올해 16회를 맞이한 KWC가 그간 어떤 변화와 발전을 거쳤고, 또 그

사이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 등을 만났었는지에 대해 회고했다. 2005년, 한국 시장에 와인은 가벼운 유행으로 다가올 때였고 아직 와인 소비 문화가 탄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엔 이른 시기였다.

그러한 때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적 와인 컴퍼티션인 KWC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은 물음표를 찍었다. 당시 최훈 원장은 이런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한국에 지식과 경험이 탄탄한 소믈리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렸고, 한편으론 해외 유명 와인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대하여 본선 심사를 책임지도록 했다. 2005년 KWC 첫 해에는 10개국에서 134종의 와인이 출품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제 1회 KWC의 성공은 이듬해 보다 뚜렷하게 증명됐다. 2회째에는 출품와인이 288종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그 뿐 아니다. 다음해인 3

회에는 454종, 또 4회째는 776종으로 연속으로 두 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KWC는 한국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다. 최훈 원장은 “2014년부터 KWC 심사위원은 오직 국내 톱 소믈리에들로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믈리에들의 실력과 경험이 해외 전문가들 못지않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는다는 KWC의 캐치프라이즈에도 더 합당한 일이었다.

KWC의 성장과 발전은 지속되었지만, 그 사이 여러 난관들도 겪었다. “2011년 식약청 통관규정으로 미수입 와인의 출품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최 원장은 털어놓았다. 지나온 길이 마냥 순탄치는 않았지만, KWC는 ‘한국 와인 소비자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착실히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그는 다시 한 번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자문의원들에게도 KWC 수상 와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실제 이날 자문의원들은 KWC 수상 와인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부터 이후 KWC 수상 와인과 관련된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ㄸ



이승웅(전 삼성물산 사장)

이윤수(전 KCTC 부회장)

임승남(전 롯데건설 사장)

최훈(와인리뷰 발행인)